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관객들이 호주 마오리족의 직조 기술을 모티브로 한 마타야호 컬렉티브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문화예술 향유 가족단위 관람객 발길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

관객참여 프로그램 인기 '파빌리온'도 일제히 개막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8일 첫 주말을 맞았다.

본전시장이 열리는 광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다양한 현대미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주말인 터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또 작품해설이 담긴 오디오 가이드를 휴대폰에 내려받아 세심하게 작품을 관람하는 ‘나홀로 관람객’들도 보였다. 개막일인 7일에는 흥익대 예술학교를 비롯해 안양예고, 인천예술고 등 외지 지역 학교 단체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시해설사와 함께 꼼꼼하게 전시를 둘러보는 이들이 많았다. 전시해설은 하루 6차례 현장 접수 가능하며, 통상 전시 해설 소요 시간은 40~50분이다.

관객들은 첫 작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시와니의 설치 작업 ‘바침’을 지나 물을 활용한 영상 설치 작품 ‘영혼 감람’을 차분히 감상했다. 또 강렬한 색채가 눈길을 끈 방콕 출신 타스나이 세타세리의 작품과 카바레를 연상시키는 붉은 방에서 이슬람의 세밀화를 선보인 바킷 부비카노바의 작품, 형형색색의 도자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데이비드 징크 이마오리의 작품은 사진 스폿으로 각광을 받았다.

한국 1세대 실험예술작가 김구림, 이진용, 이승택의 관객참여프로그램(화·일요일)은 특히 인기가 높았다. 이진용 작가의 ‘바디스케이프 76-3’ 연작이 참여한 관람객들은 전시장 벽면에 부착된

흰 도화지에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쥐고 곡선을 그리면서 본인만의 ‘바디스케이프’ 드로잉을 남겼다. 이외에 작품을 구성하는 각목과 로프 등의 구성요소를 관객이 만지고 움직여볼 수 있도록 한 이승택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도 일제히 개막식을 갖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파빌리온이 밀집되어 있는 양림동에서는 도보로 전시관 곳곳을 찾는 관람객이 이어졌다. 캐나다 파빌리온이 열리는 이강미술관, 프랑스 파빌리온의 양림미술관, 폴란드 파빌리온의 갤러리 포도나무, 스위스 파빌리온의 이이남 스튜디오 등지는 각 국가의 다채로운 동시대 미술을 접하는 문화예술 현장이 되었다.

광주송정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림동 인근, 무각사 등 전시 공간을 다니는 코스다. 광주비엔날레 셔틀버스는 1일 기준 9회 운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코 없는 형상 통해 ‘결핍’ 경험 할수 있을 것”

엄정순 작가 ‘코 없는 코끼리’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전시장에서 사람들은 조심조심 코끼리에 손을 대본다. 작품을 만지는 낯선 경험이다. 보드라운 양모로 몸을 감싼 코끼리는 따스하고 부드럽다. 석고분대로 덮힌 코끼리는 또 다른 느낌이 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만나는 네 마리의 커다란 코끼리들은 응당 있어야 할 코가 없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들에 한 번쯤 의문을 갖게 한다.

‘코 없는 코끼리’ 등을 출품한 엄정순 작가가 올해 신설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엄 작가는 지난 7일 열린 개막식에서 상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와 상패를 받았다.

“작가가 작품을 출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이 작업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할까하는 궁금증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상인데 제 작품이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에 부합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포용적인 제작업 방식도 나름 설득력을 얻은 것 같고요.”

엄 작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코끼리를 메타포 삼아 관람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문턱을 낮추었다.

“코끼리에게는 엔진이자 권력, 파워인 코가 없는 형상을 통해 그 결핍으로 다른 걸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변의 신념, 휘둘렀던 절대 권력의 힘, 인식, 관념 등이 사라졌을 때 과연 그런 게 없정말 없었다면 안됐던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받은 엄정순 작가가 작품 ‘코 없는 코끼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거야?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엄 작가는 인도네시아,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코끼리의 수난 여정을 따라가는 작업을 하면서, 시각장애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엄 작가는 “장애인과 작업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며 “그들과 25년간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영감을 주고 받아서일 거”라고 말했다.

“코끼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디아스포라적 삶을 산 셈인 거죠. 조선시대, 서울에서 그 먼 여수 장도로 유배를 떠나고 전국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는 코끼리의 모습은 21세기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이번 작품이 낯설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오해되어온 것들에 대해 고미해보는 것이죠.”

프랑스시 모리스 테이트 모던관장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은 “엄정순 작가의 작품은 감염병 이후의 비엔날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이 작품은 국적, 성별, 시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큰 의미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과학·예술 융복합 포럼

대전시립미술관·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과 월 1회 정기 개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국내 국립미술관 간 과학예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G.MAP)·대전시립미술관·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이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연

구 및 국립미술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학예술포럼은 각 기관별 순회 형식으로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종영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미디어아트 빛으로 광주의 색을 입히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발표한다. 또 미디어 작가로도 활동중인 김안나 광주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생성적 인공지능을 통한 생태 참여 생성’을 주제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예술의 생태적 접근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백기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과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 등도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5월 25일 ACC에서 공연을 하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ACC재단 제공>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광주 무대

ACC 슈퍼클래식 첫 무대...5월 25일 예술극장 극장2

1976년 미국에서 창단한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은 전 세계에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실내악팀이다. 9번의 그라미상, 3번의 그라모폰 상, 실내악단 최초 에버리 피셔 상 등을 수상한 실내악단으로 뛰어난 테크닉과 격조 높은 음악을 선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멤버들은 같은 제작자의 악기를 사용해 소리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년간 세계 최고 현악 4중주단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내한공연 첫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5월 25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 극장2.

이번 공연은 ‘클래식 대중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ACC 슈퍼클래식 올해 첫 무대로 펼쳐진다. 특히 지난 2023년 은퇴를 선언한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이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자 기획돼 의미를 더한다.

전 세계 고별 투어 가운데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무대인 이번 공연에서는 퍼셀,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등 현악 사중주 고전으로 꼽히는 작곡가들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올린에 유진 드러커와 필립 세처, 비올라에 로렌스 터튼, 첼로에 폴 왓킨스가 연주한다.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는 “5월 25일 광주에서 펼쳐질 그들의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이라는 거인들의 이름을 새겨며 현악사중주의 원류인 고전으로 마무리한다”며 “이 순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각인될 음악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ACC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ACC 슈퍼 클래식은 클래식에서 처음 입문하는 관객부터 마니아들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시리즈로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를 초청 소개하고 있다. 이번 5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에 이어 6월 ‘랜들 구스비 바이올린 리사이틀’, 7월 ‘조수미&베를린12첼리스트’, 10월 ‘킹스싱어즈,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대흠 시인, 천상병시문학상 수상

시집 ‘코끼리가 쏘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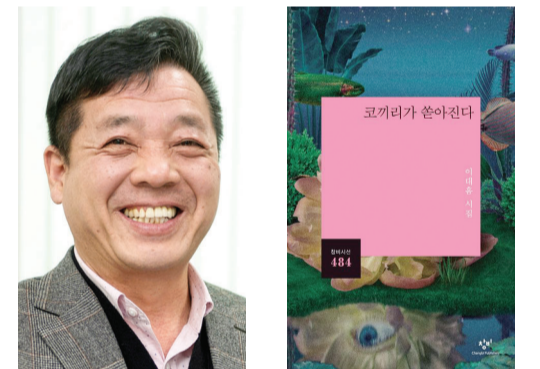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인 제25회 천상병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코끼리가 쏘아진다’(창비).

천상병시인기념사업회와 천상병시상운영위원회는 천상병 시인 30주기를 맞는 올해 천상병시문학상 수상자로 이대흠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그리움’의 의미를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노래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이란 표표를 깊이 탐사하는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지난해 발간한 ‘코끼리가 쏘아진다’는 생생한 남도 방언과 질박한 시적 서사로 작품 세계를 펼쳐온 시인이 한층 깊어진 눈으로 바라본 은유와 서정의 세계를 담고 있다.

지난 1994년 ‘창작과비평’에 ‘제암산을 본다’의 6편의 시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펼쳐온 시인은 시집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귀가 서럽다’ 등을 펴냈다. 조태일문학상, 현대시대상, 육사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이대흠 시인은 “천상병 시인은 시 외에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인데 제가 그 시인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돼 부끄러우면서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를 생각하는 천 시인의 자세를 본받아 창작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광주’ 캐릭터 포스터 보셨나요

11일 티켓 오픈 앞두고 공개 김찬호 등 배우 30명 모습 담겨 5월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개막

1980년 5월 광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뜨거웠던 외침을 그린 뮤지컬 ‘광주’(5월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개막)의 캐릭터 포스터(사진)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오는 11일 오후 2시 티켓 오픈을 앞두고 최근 공개된 ‘광주’ 포스터에는 김찬호를 비롯해 김진욱, 김수, 효은, 최지혜를 포함한 총 30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5·18민주화운동 주간에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광주’는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광주시민은 물론 당시 민주화운동을 교란하기 위해 투입된 편익대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캐릭터 포스터는 각 배역의 서사를 오롯이 담아내며 그날의 진실을 소환한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시민군을 지휘하는 야학 교사 ‘윤이건’ 역의 김찬호는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원히 머문다”라는 대사로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

아울러 극 중 배역인 ‘정화인’이 운영하는 황사음악사를 연상케하는 장소에서 LP판을 꼭 쥐고 있는 김수는 “을 거라고 믿어. 찬 바람이 멈추는 날”이라는 대사로 일상의 광주를 보여줌으로써 몽클함을 전달한다. 야학 교사이자 5·18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던 ‘문수경’ 역의 효은과 최지혜는 각각 “내가 선택한 나의 길”,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대사로 애뜻함을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